

# 재단의 핵심 가치 창의 · 포용 · 협력

“전북도민이 주도하는 문화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 이하 재단은 운영 3기를 맞아 '졸탁동시'의 자세로 도민과 함께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대표이사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단의 비전전략과 앞으로의 경영계획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새로운 비전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 대해 ▲문화예술단체 및 협회, 정책자문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 ▲재단 내부 TF 운영으로 현재 진단 및 앞으로의 현안 도출 ▲적극적인 소통 행정으로 새로운 비전전략 수립 등을 강조했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취임(6월 9일) 후 전북도 문화예술과 관광을 이끄는 경영인으로서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갔다. 외적으로는 언론사, 문화예술단체와 협회, 시군 지자체 관계자 등 한 달여 간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기회를 만들어 나갔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현재의 사업을 파악하기 위한 부서별 업무보고를 비롯해 지난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했다.

또한 이 대표이사는 새로운 비전전략을 수립하는데 무엇보다도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책자문위원회의 지문, 비전전략 TF 운영 등 수평적이고 적극적인 경영마인드로 재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 대표는 새로운 비전전략을 제시하며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재단이 되겠다”며, “Best가 아닌 Only One을 추구하는 특화된 전북도 문화와 관광의 플랫폼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문화예술분야는 안전망구축과 현실적 지원, 지역격차 완화와 도민 참여에 중점을 둔 문화향유 확대이며, 관광분야는 기능 강화와 전북모델 구축, 책임경영과 열린경영으로 사회가치 실현이 핵심이다. 비전은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와 관광 플랫폼'으로 수립해 정부와 전북도의 정책환경에 발맞춰 글로벌라이제이션(Glocalization) 개념을 기반으로 '지역(Local)'에 방점을 뒀다.

이 대표이사는 “전북의 훌륭한 문화와 문명 자원은 어느 지역보다 뛰어나고 풍부하기 때문에 미래의 동력이 된다”면서, “문화는 관광의 원천이기에 전북의 특화된 문화자원을 관광콘텐츠로 전환해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창의', '포용', '협력'이라는 핵심가치를 재단 운영의 발판으로 삼아 4대 추진 목표를 설계했다.

'창의'는 지역과 사회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동력으로서, 역발상으로 지역브랜드를 만



이기전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단의 비전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드는 데 힘쓰겠다는 의지고, '포용'은 문화복지, 다양성 등 시군의 문화격차를 최소화하고 도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는 기제로 삼고 있으며, '협력'은 영역, 집단, 지역 간에 유기적인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려는 가치다.

4대 추진 목표는 ▲지속가능한 창작플랫폼 실현 ▲지역 간 격차완화 및 도민의 향유권 확대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활성화 도모 ▲투명성, 공정성 기반 책임경영 실현이다.

우선 지속가능한 창작플랫폼 실현을 위해서는 예술가치 확산을 위한 지원체계 다변화를 추진전략으로 ▲기초문화예술 체계적 지원, ▲거점 문화시설 활성화 지원 강화, ▲예술인 복지 및 역량강화 교육지원을 계획했다.



전북도예술회관 전경

이기전 대표이사 “강점 살리고  
약점 보완에 위기를 기회로 전환  
'온리 원' 추구하는 특화된  
전북 문화 · 관광 플랫폼 될 것”



재단의 아실작, 뮤지컬 '홍도1589'

### 4대 추진 목표

기초문화예술 지원 등 통한  
지속가능 창작플랫폼 실현

생애주기별 지역문화 지원 등  
도민 주도 문화참여 확대

관광브랜드 공연예술 육성  
전북다움의 관광모델 구축

자존감 높이는 조직문화조성 등  
투명 · 공정성 기반 책임경영

둘째 지역 간 격차완화 및 도민의 향유권 확대를 위해 도민이 주도하는 문화참여 확대 전략으로 ▲생애주기별 지역문화, 예술교육 지

확대를 위한 조직개편 ▲지원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심사제도 개선과 사후관리 등이 다.

재단 관계자는 “전북 문화예술인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수준 높은 예술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예술인으로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창작활동 지원시스템을 개선해 예술인에게 맞는 지원체제로 다변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광분야는 그동안 미진했지만, 문화와 관광의 두 축을 균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관광기능을 확대해 융·복합 관광콘텐츠를 체계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재단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제도 개선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재단이 운영 3기를 맞아 새로운 비전과 함께 전환기를 맞았다”며, “앞으로 재단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늘 고민하고 연구하며 새로운 문화와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가는데 힘쓰겠다”고 강한 의지를 전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이기전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문화예술인과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재단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에 직면했다”며 “재단은 언제나 예술인과 도민 곁에서 버팀목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아, 힘들겠지만 지혜와 힘을 모아 함께 헤쳐나가자”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제8대 장수군의회 후반기에도**  
**군민을 위해**  
**열린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장수군의회  
http://council.jangsu.go.kr